역대급 5연속 악재 덮친 과수농가 '한숨'

냉해·가뭄·호우·폭염에 태풍까지…낙과·농경지 침수 피해
광주·전남 생산량 대폭 감소·품질 저하…추석 차례상도 비상

올 들어 봄 냉해부터 태풍 '솔릭'까지 역대급 악재가 5차례나 덮치면서 광주·전남 과수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수확을 앞둔 배와 사과 등의 생산량과 품질도 예년보다 상당 부분 떨어질 것으로 관측돼 추석 차례상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태풍 '솔릭'으로 순천시 낙안읍 배 농장 등 배 낙과 91ha, 벼 쓰러짐 58ha, 농경지 침수 270ha, 전복 양식 9세트(540칸)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다.

애초 우려보다 피해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올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겹치면서 과실 생산량은 예년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전남에서는 지난 4월 7~8일 최저기온이 영하 5도~1도로 떨어진 이상저온이 발생한 데 이어 가뭄이 지속됐다. 6월26일부터 7월4일까지는 장마와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전남에 평균 263.6㎜의 비가 내리는 등 집중 호우까지 쏟아졌다. 이후 최근까지 폭염이 지속돼 과수농가 등이 일소현상(日燒現象·햇볕에 과일이 데여 변색되는 현상)에 의해 피해를 입었으며 이번 태풍 '솔릭'까지 겹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나주에서 배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남형근(59)씨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전에는 배나무 한그루 당 배가 180~200개 열렸는데 올해는 악재가 겹치며 120~130개 정도에 그칠 것 같다"며 "남아 있는 배마저도 모양과 색깔이 좋지 않아 상품성이 있는 과실이 얼마나 생산될 지 예측조차 못하겠다"고 호소했다.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 추석(9월24일)을 앞두고 선물용 과일 등 신선식품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 추석은 과일 가격이 오르고, 품질도 예년만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추석 선물세트도 과일보다는, 가공식품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은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지난 23일부터 24일 오후 3시까지 신안군 가거도 317.5㎜를 최고로 진도 306㎜, 강진 245.5㎜, 무안 163.5㎜, 해남 160.7㎜, 광주 68.3㎜ 등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당시 최대 순간 풍속은 가거도 초속 37.3m, 무등산 29.3m, 해남 땅끝 24.4m 등이었다.

이번 태풍으로 광주지역 아파트 10개 단지(5500여세대)에서 정전이 발생하는 등 시설물 파손 54건, 정전 8건의 피해가 잇따랐다. 전남에선 시설물 파손 등 366건(가로수 294건·가로등 38건 등)의 피해가 접수됐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폭염 이어 이번에 폭우 광주 도심에 87.6㎜의 비가 쏟아진 26일 오후 우산을 쓴 시민이 광주시 남구 대남로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두환 돌연 재판 불출석 배경은

치매 핑계로 역사심판 회피 말 뒤집기에 광주 시민 분노

지역사회, 강제 구인 촉구
향후 일정 오늘 결정될 듯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을 하루 앞두고 돌연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측은 재판부에 재판 연기신청 등 불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데다, 광주일보〈2018년 8월 22일자 1면〉 등 언론을 통해 출석의사를 거듭 밝혀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출석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부인해 왔던 알츠하이머 진단을 공식화했다는 점을 들어, 5·18 관련 각종 형사책임과 10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 등 각종 민·형사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불출석 입장문을 통해 알츠하이머를 앓게 된 이유를 검찰수사 탓으로 돌리고, 재판참여도 국민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왜곡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재판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간접적 의사표현이라는 해석도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는 26일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명의의 입장문에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과 일가 친척과 친지들에 대한 무차별적 재산 압류 소동을 겪은 이후 한동안 말을 잃고 기억상실증을 앓았다"면서 "한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 불려 나와 앞뒤도 맞지 않는 말을 되풀이하고,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국민도 보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정상적인 진술과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살펴볼 때, 시간 맞춰 약을 챙겨드리는 등 옆에서 돌봐드려야 할 사정 등을 생각할 때, 아내의 입장에서는 왕복에만 10시간이 걸리는 광주법정에 무리하게 출석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재판부에 강제구인을 촉구하는 등 엄정대처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갑자기 말과 행동을 뒤집는 것은 광주 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5월 단체들도 황당해하고 있다"면서 "전씨는 5·18 때부터 지금까지 왜곡을 주도한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도 강제구인 등을 통해 엄중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 놓쳐버린 전 전 대통령이 파렴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쌍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일단 그동안 피의자측의 요청으로 재판이 두 차례나 연기됐다는 점에서, 재판 당일인 27일 오전 향후 재판 일정에 대한 입장 등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오후 2시 30분으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예정됐던 이번 재판은 피의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형사재판으로,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첫 재판(제1회 공판기일)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를 불러 향후 공판기일을 다시 정하는 방안 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측에서)공식적으로 기일변경 신청 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면서 "향후 일정은 내일 오전 중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투자금 다툼 끝 영암서 동거녀·아들 살해 50대 구속

영암경찰은 26일 축사 투자금 문제로 갈등을 겪던 동거녀와 동거녀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안모(5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25분께 영암군 서호면 A(여·53)씨의 돼지축사에서 A씨와 A씨의 아들 B(3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14여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안씨는 최근 자신이 투자한 축사 투자금 4000만원 반환을 놓고 A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4개월 전부터는 별거 상태에서 축사를 오가며 일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범행당일 돼지먹이를 주기 위해 축사에 들렸고, 투자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들고 와 A씨 모자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범행 후 광주로 달아났으나,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서구의 한 모텔에서 술과 수면유도제 등을 먹은 상태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법원 "광주 야구장 소음·빛 참을 만 하다"

주민 339명 항소심도 패소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이하 광주 야구장) 인근 주민들이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광주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339명이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빛, 교통 혼잡에 따른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재판부는 야구장 소음·빛 정도가 환경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점, 주민들이 입주 당시 소음·빛 발생을 예상한 점, 광주시와 구단이 저감 노력을 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광주야구장에서 100m 떨어진 아파트 주민들은 "도심 한복판에 야구장을 지어 경기가 열릴 때마다 소음과 빛 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음 피해 기준을 60dB(데시벨) 이상, 빛 피해 기준을 불쾌글레어지수 26 이상으로 잡고 총 6억2600만원(평균 95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와 구단은 야구장 관련 규제가 없고 야구장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2014년 2월 준공된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는 대지 8만 8000㎡, 연면적 5만 7000㎡,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수용인원은 2만 7000여명이다. 인근에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한 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경찰청 총경 교통사고 사망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총경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26일 새벽 12시 15분께 무안군 무안읍 도로에서 전남지방경찰청 A(54) 총경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콘크리트로 된 회차로 안전방지턱을 들이받았다.

A총경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목포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남의 여친과 밀회 30대, 항의하던 남자 차에 매단 채 주행

쌍나팔

○…자신의 여자친구와 승용차 안에서 스킨십을 했다고 항의하는 남성을 차에 매달고 300m 가량 운전한 3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될 처지.

○…26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고승일 부장판사)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해 4월 24일 새벽 4시께 청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B씨의 여자친구와 밀회하던 중 이를 목격한 B씨가 승용차 보닛에 올라가자 B씨를 매단 채 300m 가량을 주행했다는 것.

○…B씨는 운행 중인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재판부는 "자동차는 인명 살상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는데 사용됐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봐야 하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

/연합뉴스

나주 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보다
부동산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곳!!

개발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인접 국가산단에
투자하거나 공동중개 하실분 상담환영!!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